

지역 예술인이 본 광주 정신과 전통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작품 공모
연극·무용·영화·퍼포먼스 등 20일까지
선정작 4편 최고 5000만원 지원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운데 가장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간 중 하나가 아시아 예술극장이다.

예술극장은 지난 한해 동안 다양한 커뮤니티 퍼포머티비티(Community Performerity)를 진행해왔다. 예술극장이 지향하는 '동시대 예술'을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함께 시민들이 작품 제작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특징이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리미니 프로토크의 '100% 광주'를 비롯해 판소리 춘향가를 새롭게 해석한 정은영 작가의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전남대학교 생활관에서 진행했던 안나 리스폴리의 '집에가고 싶어', 동산초등학교 상점가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마말리안 다이빙 리플렉스의 '우리아웃을 소개합니다', 안은미의 '초생경극-무뮈/無-언어' 등이었다.

지역에서는 예술극장이 자체 제작하고 초청하는 작품과는 별개로 광주 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제작하는 작품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 왔다. 지금까지 지역 예술인들의 경우 극장측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협업 파트너나 단순한 출연진으로 합류하는 데 머물러 온 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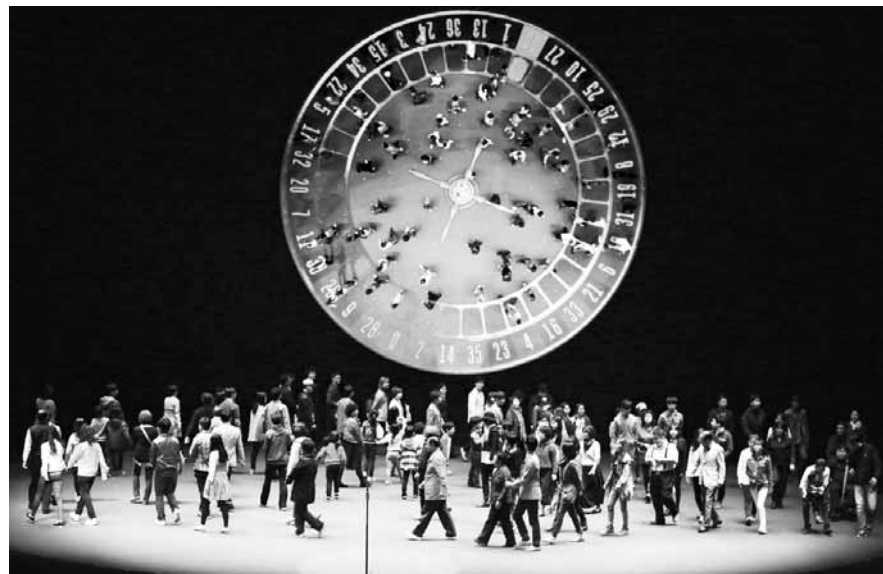
역시 지역 예술인들과의 접점을 모색해 오던 예술극장은 '아시아 예술극장 토크-광주예술계와 함께하는 예술극장'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의 예술가, 기획자 등을 초청, 의견을 들었다. '광주 예술가에게 듣다', '광주예술가 프로그램', '광주 젊은 예술가 지원' 등을 주제로 토크가 진행됐다.

예술극장은 전라·광주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예술극장 개관 시즌 광주커뮤니티 작품 제작 공모를 진행중이다.

▲광주 정신과 전통을 동시대의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 ▲사회 전반 및 문화·예술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보여주는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연극, 무용, 영화, 퍼포먼스, 게임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다.

선정된 작품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모두 4편을 선정한다. 1단계 워크숍 과정을 거친 후 2단계 프리젠테이션(영상, 부분 쇼케이스) 등을 거쳐 작품을 공연하게 된다. 공연 일정은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다. 마감은 오는 20일. 문의 062-410-36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나해 아시아예술극장이 제작한 '100% 광주'.

나는 조선인인가, 중국인인가

광주시립극단 '광주 1백년사 연극 시리즈'
'악대장 정율성' 4월 10~12일 문예회관



광주시립극단(박윤모 예술감독)은 지난 해부터 광주의 인물을 조명하는 '광주 1백년사 연극 시리즈'를 시작했다. 근대화 1백년 역사 속에서 광주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광주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에는 오방 최흥중(1880~1966) 선생의 삶을 극화한 '오방 선생'을 제작했다.

올해 극단이 추켜든 인물은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1914~1976)이다.

"조선은 나를 중국 사람으로 여기고 중국은 나를 조선 사람으로 여긴다. 나는 누구인가? 음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가난하고 소박한 한 음악가일 뿐이다."라 이야기했던 정율성의 삶은 드라마틱하다.

항일운동·음악 열정

해방 후 중국에 남기까지

드라마틱한 삶 조명

시립극단이 준비중인 '악대장 정율성'(가제·4월 10~12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은 중국현대사에 휘말린 조선인 예술가의 치열했던 삶과 예술혼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은 서양인 선교사들이 세운 양립촌에서 보낸 어린 시절, 송일중학교 밴드부 활동, 외삼촌 최흥중 목사와의 기억 등을 되짚는다.

중국에서의 치열한 항일운동과 음악에 대한 열정, 부인 정설송과의 사랑이야기가 이어지며 해방된 조국을 맞이하지만 남북 어느 쪽도 아닌 중국인이 되어 있는 정율성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또 문화혁명의 광풍 속에서 고초를 겪지만 자연과 소박한 삶 속에서 평화를 찾게 되는 말년의 모습까지를 그려 예정이다.

음악극으로 제작되는 이번 작품은 정율성의 음악들로 채워지며 6인조 라이브 악단이 연주를 담당한다.

대본은 연극 '해무'의 김민정 작가가, 연출은 음악극 '에릭사티'의 박혜선씨가 맡았다. 작곡과 음악감독은 정동국작예술단 작곡가를 역임한 정원기씨며 출연 배우는 오는 27일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

한다.

박윤모 예술감독은 "정율성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와 우정을 돕고 동북아시아를 잇는 구심점이라 생각한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프렌들리'와 관련, 중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악과 정율성의 스토리가 결합한 '정율성' 콘텐츠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립극단은 이번 작품을 정율성극제음악제, 정율성 생가, 정율성 거리 등과 연계해 해 중국인들을 모으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다. 향후 중국 교류공연, 중국관광객들을 위한 상설공연도 추진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꾸꾸꾸꾸 생명평화 영화제 28일 푸른길 기차... '모노노케 히메' 상영

제3회 꾸꾸꾸꾸 생명평화 영화제가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푸른길 기차(남광주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열린다. 생태 읽기 모임 꾸꾸꾸꾸가 진행하는 행사다.

이날 함께 관람할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다.

미야자키 히야오의 대표작인 '모노노케 히메'는 중세 일본, 개발지와 원시림이 공존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아시타카는 제왕의 신을

쓰러뜨린 죄와 그 대가로 자신에게 내린 저주를 풀기 위해 길을 떠난다. 아시타카는 숲을 개발하려는 일군의 무리와 숲의 정령을 보호하려는 원령공주 간의 다툼에 개입한다.

영화 상영 후에는 소원 팔찌를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재료는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안 쓰는 물건을 가져오면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으며 개인컵을 가져오면 따뜻한 차도 제공한다. 문의 010-4635-85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2015 신앙강좌

28일부터 매달 격주 수요일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를 '본당의 해'로 정하고 '세대별 활성화 및 일치'를 통한 본당 복음화'를 위한 2015 가톨릭 신앙강좌를 1년 동안 진행한다.

이번 신앙강좌에는 김희중(주교회의 의장) 대주교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좌는 오는 28일부터 매달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진행된다.

28일에는 김희중 대주교가 '신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2월 11일에는 자승 스님이 '이웃 종교 이해(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어 손삼석 주교(부산교구 총대리), 최창무 대주교(전 광주대교구장), 문미선씨(곡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도은영 교수(광주여대 간호학과), 김은은 수녀(살레시오수녀회), 서영남씨(민들레 국수집 대표), 노길명 교수(한국교회사연구소 고문) 등이 참여해 '탈핵', '세월호 1년, 그 이후', '5·18과 교회', '한국의 신흥종교' 'SNS시대 부모와 자녀의 소통 방법' 등을 주제로 강좌를 연다. 문의 062-380-2832.

남도씻김굿보존회 '신년 재수굿'

17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너털마당에서 토요일상설공연으로 남도씻김굿보존회를 초청해 '신년 재수굿'을 한다.

재수굿은 집안의 안녕과 재복, 자손의 창성, 가족의 수복을 비는 무속의례이다. 이번 공연은 2015년 한 해 동안 광주시민 모두의 안녕과 복을 빌고 하계U대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큰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를 빈다. 모든 신들에게 굿을 고하는 법사굿을 시작으로 집안 사람들의 수명, 화복(禍福)을 관장하는 제석신을 청한다.

이어 ▲지신굿(동서남북 지신을 누르는 타) ▲성주맞이 굿(아래만수 대신을 불러 집짓기) ▲노적맞이 굿(돈과 재물을 들이기) ▲엿맞이굿(집안의 운세와 재물을 관



장하는 가신인 엿을 맞이하기) ▲엿매기 굿(엿 막기) 순으로 진행된다.

사단법인 대한명인회의 대한명인 50호로 지정된 이상조(사진)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북 김형재, 대금 김승호, 장구 정인성, 춤 안규현, 소리 이정희가 출연한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

이치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